第250回國會 (定期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錄 第 4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4年9月16日(木)

場 所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북한양강도폭발사고에관한보고
   가. 통일부소관
2.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3.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에대한공청회개최의건

審査된案件

1. 북한양강도폭발사고에관한보고 ····· 1
   가. 통일부소관
2.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임채정 의원 대표발의)(임채정・강봉균・강창일・고진화・구논회・권선택・권영길・권오을・김교흥・김낙순・김덕규・김명자・김부겸・김성곤・김영숙・김영주・김영춘・김우남・김원웅・김재윤・김재홍・김종률・김태홍・김한길・김혁규・김현미・김형주・김효석・노영민・노웅래・노현송・단병호・류근찬・문병호・문석호・문학진・문희상・박기춘・박영선・박재완・박찬석・배기선・배일도・백원우・복기왕・서갑원・서재관・선병렬・손봉숙・송영길・신계륜・신국환・신기남・신중식・신학용・심재덕・심재철・안민석・안병엽・안영근・안홍준・양형일・염동연・오영식・오제세・우상호・우원식・우제창・원혜영・원희룡・유기홍・유선호・유승희・유시민・유재건・윤호중・이강래・이경숙・이계경・이광철・이기우・이목희・이상경・이석현・이시종・이영호・이원영・이은영・이인영・이종걸・이철우・이호웅・이화영・임종석・장복심・장영달・장향숙・전병헌・전재희・정덕구・정두언・정병국・정봉주・정세균・정의용・정장선・정청래・제종길・조배숙・조성래・조정식・진수희・천영세・최규성・최규식・최성・최순영・최용규・최인기・최재성・최재천・한명숙・한병도・한화갑・홍미영 의원 발의) ····· 30
3.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에대한공청회개최의건 ····· 35

(14시16분 개의)

○위원장 임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국회(정기회) 제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북한 양강도 폭발사고에 관한 통일부장관의 보고를 듣고 그다음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1. 북한양강도폭발사고에관한보고

가. 통일부소관

○위원장 임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북한양강도 폭발사고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말씀하세요.

○권영길 위원 어제 제출되었던 주한미군용산기지이전에대한감사청구안에 관한 것입니다.

어제 63명의 의원이 서명한 용산기지이전감사청구안을 본 위원회에 상정했었습니다. 제안자였던 노회찬 의원이 서면으로 제출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감사청구안이 본 위원회에서 언제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결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용산기지이전감사청구안을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안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번 FOTA회의에서 국방부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이 30억 내지 50억 불이 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92년 4월 한미연합사령관이 최세창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97년 기준으로 95억 불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97년 기준에 95억 불인데 지금 우리 국방부가 추산하고 있는 30억 내지 50억 불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어떤 언론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의 미국 국방관계 소식통은 용산기지의 반만 이전할지라도 20조 원이 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20조 원이 아니라 100조 원이 넘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기지 이전은 사실상 합의가 되었었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용산기지 이전에 관해서는 곧 국회에서 비준되는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가 정말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 그래야만이 국민에게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에 대해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근거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 국제적 관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 있어서는 분명히 독일 프랑크푸르트 마인공항 내에 있는 미군기지 이전을 독일이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우는 미군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토가 그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독일이 전액 부담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100조 원이 될는지 또는 그 이상이 될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곧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비준 절차를 국회에 요청할 것입니다. 비준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책무를 우리 위원회가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안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할 때 본 위원회는 물론이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다할 도리를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나중에 누가 져야 될 것입니까? 통일외교통상위 위원들이 지겠습니까?

만약에 심의 없이 실제적으로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100조 원 가깝게 될 때 우리는 그 책무를 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본 위원회가 이것을 다시 날짜를 정해서 공식적으로 의안으로 상정해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유선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선호 위원 어제 이 안에 대해서 일단 명쾌하지는 않지만 결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안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고 추후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결정을 봤기 때문에 오늘 의안에 상정이 안 되어 있는 안을 가지고 여기서 상정 일시를 잡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권영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양당 간사와 권영길 위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아까 제시하신 여러 가지 일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주시고 다음 일정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오늘 회의의 효율적인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그렇게 해 주시지요.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권영길 위원 제가 오늘 바로 여기서 상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상정한다는 것은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비준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비준하고 나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정부가 비준을 요청하기 이전, 그리고 국정감사 이전에 상정을 해서 다루자는 것까지는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권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여러 가지 일정도 있고 여야 간사 간에 상의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토의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여야 간사끼리 합의를 해서 날짜를 잡기로 하고, 그렇게 양해를 하고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갑자기 잡는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 이미 여러 가지 일정이 잡혀 있는데 갑자기 그 날짜를 언제로 잡겠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야당 간사가 곧 오실 모양이니까 같이 날짜를 잡아서 회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 상의를 하도록 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날짜를 잡는데 국정감사 이전에……

○위원장 임채정 지금 권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제의를 하셨으니까 제의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니까 국정감사 이전에……

○위원장 임채정 그렇게 못박지는 마시고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아니지요. 비준되고 나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위원장 임채정 비준되기 전에 해야지요. 비준된 후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이지요.

○권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비준되기 이전에 용산기지이전감사청구안을 다룬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그 문제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통일부장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강도 폭발사고설과 관련한 보고입니다.

지난 9일 오전 북한 양강도 김형직군 지역에서 특이한 형태의 구름을 위성을 통해 포착했습니다. 전날 밤에 감지한 지진파와의 상관성을 유의하면서 분석하였으나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관계 전문기관은 지진파의 진원지가 사고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100㎞ 이상 떨어진 백두산 지역이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금번 이상 징후가 핵실험과의 연관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하 핵실험일 경우 구름이 발생하지 않고 지상 핵실험 시 발생하는 일정량의 방사능이 대기 중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문제지점이 중국 접경지역이라는 점에서 핵실험은 아닐 것이라는 데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가능한 정보수단을 동원해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9월 12일 일요일 오전 우리 언론의 최초 보도 이후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같은 날 본인은 기자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북한 지역에 폭발 사고 징후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외신의 핵실험 가능성 보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추가정보가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미국 역시 핵실험에 의한 폭발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정확한 원인에 대한 단정적 판단은 유보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초기부터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미국 등과 긴밀한 정보협조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9월 12일 이후 미국의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파월 국무장관 등도 일관되게 핵 활동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13일 월요일 북한은 백남순 외무상과 라멜 영국 외무차관 간의 면담에서 양강도 지역 폭발은 거대한 수력발전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산악지역을 계획적으로 발파한 것이었다고 언급했고 이어서 북한 중앙통신과 평양방송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아울러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도 허용할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9월 14일 통일부장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발전소 건설을 위한 폭파작업일 가능성이 있겠으나 사실여부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 보겠으며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같은 날 국방부장관은 기자 질의 답변에서 "날씨가 맑으니 오늘 내일 위성사진을 찍어 판독할 수 있을 것이다. 타 부처와 협조하면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해명이 있었지만 9월 14일까지도 그 실체가 정확히 규명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9월 15일 어제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조찬간담회에서 "김형직군 인근 지역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발파 가능성과 당시 기상상황으로 보아 특이한 형태의 자연 구름일 가능성이 있으며 지속 추적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양강도 폭발설이 안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우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동향을 점검해 본 결과, 고위층 동향, 외국 대표단들의 방북활동 등에서 이상 징후가 없었고 군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입수된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최초 포착된 특이한 형태의 구름은 현지 지형과 당시 기상상황으로 보아 자연구름 적란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일단 판단됩니다. 다만 인근지역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발파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 확인 중입니다.

앞으로 관련사항을 정밀 추적해 실체를 확인해 나가겠으며 북한주재 외교관들의 현장 방문이 이루어지면 보다 확실한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김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위원 김부겸 위원입니다.

장관님, 결국 해프닝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뭐라고 판단할 단계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9월 9일 오전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으로부터 오늘 9월 16일 1주일 동안 진행된 경과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특히 핵과 관련된 외국 언론의 집중적인 의혹 제기는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적어도 북한 핵관련이라든가 혹은 안보문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현재는 판단됩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김부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려했던 대로 우리 언론은 결국 이렇게 되니까 초점을 한미공조에 이상이 있다, 안보가 뭔가 시원찮은 것 아니냐는 식으로 다시 공격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장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9월 9일 특이한 형태의 구름을 위성을 통해 포착한 이후 한미 간에 긴밀한 정보의 교류협력에는 어떠한 이상도 없었습니다.

○김부겸 위원 현재 NSC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김부겸 위원 현재 상임위원장으로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미 정보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한국에 정보를 배제시켰다든가 혹은 자신들만이 깊은 비밀을 지닌 채 양국 간의 신뢰에 금이 갈 만한 행동을 한 징후가 보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이 이 문제야말로 마치 한미 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초점을 옮겨 가면서까지 계속해서 마치 안보전선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정보파악 능력이 형편없는 것처럼 몰고 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보도가 항상 정확할 수는 없지요.

○김부겸 위원 혹시 북한에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국민들을 현혹시켜 놓고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다른 무엇인가로 초점을 바꿔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언론에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부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아리랑 1호 가지고는 해상도가 6.6m에 불과해서 식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북한의 기상상태를 고려해서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고, 정부의 그런 입장을 뒤바꿀 만한 다른 정보가 미국 측으로부터 없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해서 쓰고 있는 민간 상업용 위성인 옵뷰를 비롯해서 사진촬영 첩보위성 KH-12, 라크로스위성, DSP 조기경보위성 등 모든 정보를 수집해 보아도 현 단계에서 이것이 안보나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렇게 대한민국 정정이 일대 격돌을 벌이는 것은 우리 정치가 갖고 있는 어려운 현주소라고 봅니다. 장관의 소회를 말씀하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과도한 언론의 관심 집중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신중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포인트였고, 그것에 따라서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냉정하게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위원 이번에 이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면서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미국과 정보교류를 하면서 우리들의 안보를 담당하는 지휘부로서 허점이라든가 부족한 점을 발견한 것은 없습니

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시스템의 이상은 없었다고 자신합니다. 사실 9월 12일 NSC 상임위원회는 우라늄 레이저 조사실험과 플루토늄 추출실험에 대한 해외언론의 사실 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억측 제기에 대해서 쐐기를 박기 위해서 관계부처 간에 긴밀하고 깊이 있는 토론과 함께 발표문을 만들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즉 투명성의 원칙을 신고 이전·이후 전 과정에 걸쳐서 지켜 나갈 것이라는 점과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확실하게 천명하는 것, 그리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것을 9월 12일 일요일 아침에 NSC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결론을 모으고 이것을 언론에 설명했습니다마는 불행히 이 내용은 대부분 잘 전달이 안 되었고 공교롭게 그 시기에 보도된 뉴욕타임스 외신에 핵실험 운운하는 억측기사와 베이징발 외신 통신보도가 증폭되면서 과도하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위원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소위 국내에서 정치적 쟁점이 될 때마다 흔히 유력한 보도의 근거로 드는 서방 언론이나 중국 언론도 항상 진실을 보도하거나 진실에 가깝게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언론에 있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의 문제겠지요. 그런데 때때로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부겸 위원 본 위원이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기에 우리가 여러 정보가 부족할 때 판단하더라도 이 부분이 핵실험으로까지 혹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북한이 미국 대선을 이용하여 뭔가 일을 일으킨 것처럼 몰고 간 측이나, 혹은 국내에서는 그런 정보를 판단하는 최고 책임자의 발언을 믿지 아니하고 서양 언론의 보도만 마치 진실인 양 확대 증폭되는 서로 간의 불신의 분위기를 어떻게 해소해야만 앞으로 국론을 모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이것은 돌출적인 사안이고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특성 때문에, 곧바로 정부가 단정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정보교류가 원활치 못해서 오판을 했다든가, 혹은 그 결과로 사실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든가, 혹은 결과적으로 미국이 한국 정부를 골탕을 먹였다든가 하는 증거나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런 근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미국과 정보 협조가 잘 되어 왔다고 판단합니다.

○김부겸 위원 장관께서 초두에 진술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 혹은 미국의 여러 첩보 기능의 판단도 일치합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김부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김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부겸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이유야 어디에 있든 언론이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번이 북한 국경일인가 무슨 중요한 날 전날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날이었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9·9절입니다.

○정의화 위원 그 전날 자기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수력발전을 위한 폭발을 하고 그것도 야간에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간의 북한 행적을 봤을 때는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통일부에서는 분석을 하고 계시겠지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일부장관 정동영 아직은 그것과 관련해서 정확한 상황 판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의화 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저는 북한의 의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 정부에서 나름대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연 발생한 구름과 핵실험으로 인한 구름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 사진을 찍는다면 한 장만 찍을 수도 있고 1초에 여러 장을 찍을 수도 있을 텐데 위성을 가지고 촬영한다면 추측컨대 동시다발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여러 장

을 찍었을 텐데 그것이 구별이 안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성인 아리랑 1호로 찍은 위성사진이 화질에 있어서 미국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띄운 위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위성사진이 그렇다면 방금 장관께서는 미국과의 공조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나타난 현상을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공조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미국과 이런 저런, 특히 남북관계로 인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확인하는 핫라인 같은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한미 간의 정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서 정보수집, 정보교류, 정보협력은 긴밀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KEOC 같은 정보수집기관이 있는데 합동근무를 통해서 한미 간의 실무 레벨에서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만약 그것이 핵실험이라고 하면, 바람이 어느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것은 아니니까 방사성 물질이 바람을 타고 1주일 동안 분명히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서 벌써 방사능 물질이 감지가 됐을 것이거든요. 아주 작은 미립자라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1주일이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단 핵실험은 아닌 것 아닌가라고 이공계 출신으로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부가 이번에 있었던 사태의 전말을 잘 총정리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해프닝인지 아닌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 봐서는 해프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더라도 이번과 같이 당황스러운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어제 우리가 외교부장관님하고 핵실험 문제와 시안화나트륨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통일부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와 생각이 같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신뢰, 특히 4국을 위시한 국제적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화학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출이 되어서 그것이 북한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정부가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는 데 분명히 뭔가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이번 핵실험 부분도 어제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22년 전의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은 국제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뭔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친북·반미 세력의 세가 대한민국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과 같이 결부해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서 결과적으로는 통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 통일부는 이번의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서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신뢰를 쌓는 데 한치의 문제도 생기지 않게끔 장관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상임위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정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륜 위원 참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문제들이 터지기도 하고 수습되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는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무척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엄청난 큰 일이 북한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도되고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어 사람들의 불안심리를 한껏 부추겼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어딘가 이 사회에 문제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폭발사고가 어떤 것이었는지 분명하게 규명하는 일과 더불어서 그러한 일이 왜 이렇게 증폭되고 과장되고 확대되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 국민 모두가 가져야 할 생각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몇 가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보고한 것에 따르면 정확한

사고 일시가 9일 오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9일 오전 11시 36분입니다.

○신계륜 위원 9일 오전 11시 36분이 정확한 표현입니까? 중간에 보니까 8일 저녁, 9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폭발사고가 난 정확한 시점을 9일 오전 11시경으로 보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폭발사고가 아니고 위성사진에 찍혀 있는 시간입니다. 구름 관측 사진이지요.

○신계륜 위원 그러면 폭발사고가 난 시점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나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관계기관에서 이것을 폭발사고의 징후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신계륜 위원 그렇다면 폭발사고가 난 것은 그 무렵이라고 볼 수 있나요? 폭발사고가 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폭발사고가 났다면 9일 오전……

○통일부장관 정동영 실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것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평양에 주재하는 8개 나라의 외교관들이 현장에 갔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지나면 좀더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신계륜 위원 그러니까 폭발사고의 성격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그런 행위가 있었음직한 일이 있었던 시점이 자료마다 틀려서…… 위성사진에 그러한 이상 징후가 포착된 것은 11시경인데, 만약 있었다면 그 시각대였을까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연현상인지 아니면 그것이 폭발사고에 의한 폭발운인지 자체가 당시로서도 그렇고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발사고나 발파가 있었다면 그것의 정확한 위치와 시간을 확정하게 하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신계륜 위원 수력발전소 댐 건설을 위한 것이든 산을 해체하기 위한 작업이든 간에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은……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 시점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신계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있었다면 항공위성 사진이 찍힌 시점 이전이었을 것 같은데 언제 정확하게 일어났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사건이 증폭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해 주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증폭돼 있거든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언론을 탓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9월 12일에 국민들에게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면 좀더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하에서 차분하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초기에 존재하는 것은 사진 한 장과 지진관측연구소에서 파악한 진동 감지, 그러나 그것의 상관관계는 대단히 희박한데 이것이 전부인 상태에서 이것이 보도되고 노출됨으로써 관심이 과도하게 집중됐다고 보입니다.

○신계륜 위원 아직 시점은 명확히 말할 수 없는 단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장관께서 이 사진을 11시경에 바로 받으셨나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채널에서 판단하고 분석해서 관계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신계륜 위원 처리해서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이것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그렇습니다.

○신계륜 위원 받아서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것이고……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보고되었습니다.

○신계륜 위원 자료를 보니까 9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9일 중으로 대통령께 보고가 되었나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정확한 시점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신계륜 위원 아무튼 보고를 받고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사진에 대한 보고계통이 꼭 NSC 상임위를 거쳐서 보고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계륜 위원 이것도 물론 신문보도이지만 NSC에서 보고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말했더라고요. NSC에서 사진이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늦지 않게 대통령께 보고했을 텐데 아마 9일 안으로 보고되었을 것 같은데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신계륜 위원 어쨌든 대통령께 보고는 됐고, 그런 준비를 하고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도중에 12일에……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정보 수집과

추가 판단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신계륜 위원 이 문제 때문에 12일 언론보도 되기 전에 NSC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한다든가 이런 일을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었나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12일 일요일 NSC 상임위원회는 IAEA 이사회를 앞두고 핵물질 평화적 이용에 관한 신고와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계륜 위원 원래 12일 NSC 상임위원회는 IAEA와 관련해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문제도 거론이 되었군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보고가 있었습니다.

○신계륜 위원 종합해 보면 구름 관측과 사진 판독이 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서 이 문제를 논의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신계륜 위원 그렇기 때문에 12일에 소집된 것도 국제원자력기구 문제에 관련된 것으로 소집했다가 이런 문제가 보고된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신계륜 위원 그다음에 12일 오전에 난 뉴스가 중국 소식통에서 최초 보도를 했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신계륜 위원 이 보도 이후에 장관의 공식 언급이 있었지요? 아까 보고한 것처럼 브리핑을 잠깐 했었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신계륜 위원 그런 징후가 포착되었지만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요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한 공식적인 입장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장관이나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특위나 외통위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 이외에는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료를 내거나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자료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 이상으로 진전된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일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언론이 상상을 초월하는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신문을 보면 차마 읽지를 못하겠어요. 신문들이 어마어마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사진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못 본 사진에다 무슨 지진파가 감지되었고,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고, 미사일…… 이렇게 전 신문이 난리를 쳤습니다. 만약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결론난다면 보도는 그냥 조용해지고 그동안 속은 많은 사람들이 큰 고충과 마음의 상처를 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증폭된 것은 정부 측이 잘못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자성해 보고, 언론이 왜 그렇게 이 문제를 더 확대했는가도 한번 판단해 보고, 우리 국민은 앞으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슴 아픈 것은 신문보도들의 내용을 볼 때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청와대 관계자, 정부 고위소식통, 정부 전문가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였고, 전혀 사실과 다른 인터뷰를 했을까 하는 의문도 아울러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주무부처로서 통일부에서 그랬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튼 정부 소식통의 인용에 의해서 나온 굉장히 이상한 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의 총체적인 진위 여부와 함께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가에 대해서 각 부분에서 점검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헌 위원 정문헌 위원입니다.

양강도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아리랑위성이 찍은 흐릿한 사진 몇 장이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진 이번 양강도 폭발사고와 관련된 정보의 전부입니다. 그동안 자주국방에 수많은 돈을 쓰고 정보기관을 육성해 온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미국으로부터 정보 협조도 잘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고, 여기에 10월 충격설로 국민은 더욱 불안하고 민심은 흉흉한데 사건 발생 일주일 여가 지나도록 구구한 억측만 무성합니다. 지금 노무현 정권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NSC의 상임위원장이십니다. 미국과의 정보 협조에 별문제가 없다면 미국에 대해

서 관계기관에서 자료요청을 했을 것이고 당연히 NSC에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첩보위성 KH-12 등이 찍은 양강도 폭발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미국과의 정보 협조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미국 첩보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미국 측에서 우리 정부에게 줘서 그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미국 측으로부터 받을 정보 협력은 다 받은 것으로 압니다.

○정문헌 위원 KH-12 첩보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 사진을 볼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보고 분석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문헌 위원 장관께서는 못 보셨군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한미 간의 정보 협력에 어떠한 이상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측이 먼저 사진을 제공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언명이 있었고……

○정문헌 위원 장관께서는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미국 측 첩보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시네요.

신호정보에 대해서는 미국 측으로부터 우리 측에 통보가 들어온 바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정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정보 협조에 이상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문헌 위원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미국 정보의 입수, 정보의 융합·판단 등은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식으로 협조가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미 간에 정보 협력 양해각서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와 방법 등에 의해서 그동안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번 사안에 관해서도 한미 간의 정보 교류 협조에 이상한 징후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문헌 위원 과거 정권하에서는 예를 들면 북한의 미사일 연소실험, 영변 핵원자로 사진 등 현안이 발생하면 수일 내로 미국의 협조를 받아서 관련된 생생한 사진이 국회의 관련 상임위 위원들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정보위에는 미국 상업위성이 찍은 사진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미 첩보위성이 찍은 선명한 사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과거 같으면 충분히 가능했던 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장관께서는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이 사진을 보셨다, 안 보셨다 말씀조차 정확하게 못하시는데 이런 사실 자체가 한미공조의 심각한 균열의 징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군사정보에 관한 것을 세세하게 공개리에 이야기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신중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문헌 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비공개회의를 통해서라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오늘 보고하신 부분이 다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현재로서는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공개했습니다.

○정문헌 위원 Fact Finding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의 진위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Fact Finding이 안 되고는 정책도 대책도 수립될 수 없습니다.

서울 북쪽 500㎞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폭발조차 규명이 안 된다면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까막눈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일입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발전소 건설을 위한 폭발이었다면 야단법석 떠는 우리 꼴이 우스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과 비교해서 장관은 지금 자꾸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국회 같으면 벌써 미국 상업위성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오고, 신호정보에 의해서 잡힌 정보들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제출되는 것이 없어서 본 위원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장관께 묻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문헌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의 국경 경비가 느슨해지고, 수십만의 탈북자들이 지금 국경을 넘나들고, 중국 등지에 머

물고 있지만 우리 당국의 인적정보 획득수준은 한심한 노릇입니다. 지금 NSC는 과도할 정도로 비대해져 있고 정작 군과 정보기관, 재외공관 등의 최일선 정보조직과 채널은 약화될 대로 약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있고 움직일 손발은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고 김선일 씨 사건 때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인적정보 획득수준도 확대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군사정보와 안보를 담당하는 현장의 요원들과 지휘부는 나름대로 애국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맡은바 임무를 100% 수행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신뢰합니다. 위원님의 비판은 자유입니다마는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까지는 저는 좀……

○정문헌 위원 현재 우리의 인적정보체제 자체가 위의 생각하는 머리만 크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정보를 획득해야 되는 재외공관, 정보기관의 일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체제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안 하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적정보 획득수준을 늘리기 위해서 밑에서 손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기관들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가 어떠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걱정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문제는 우리 민족의 사활이 걸린 것이고 또 동북아지역의 사활적 이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정부는 어떤 정부도 없습니다. 참여정부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런 연장에서 우리 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고언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 있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지휘부에 대한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문헌 위원 이것이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서울 북쪽 500㎞ 밖에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폭발에 대한 원인 규명도 못하고 있는데 한미 공조도 제대로 되고 있고 우리의 인적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원인 규명이 안 되는 것입니까? Fact Finding이 되어야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장관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일주일이 넘도록 Fact Finding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제일 좋은 것은 남북 간의 신뢰 수준을 올리는 것입니다. 불행히 남북 간의 핫라인 개설에 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실무레벨에서의 통신선 이외에 예를 들어 책임 있는 고위 정책책임자 간에 핫라인 같은 것을 평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계로 빨리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것만이…… 최근의 사안을 보면 이것이 이른바 북측의 폐쇄성에서 빚어진 것인, 예를 들어 저희가 가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가장 확실한 것이겠지요. 남북관계의 신뢰를 올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문헌 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한미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장관 말씀처럼 잘 진행이 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여하튼 우리의 정보체제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미공조체제가 흔들리지 않게 잘 보완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진상규명이 늦어지고 정부의 공식적인 판단이 지체될수록 현 정부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고 있다, 시간을 벌기 위해 진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식의 국민적 의혹이 증폭될 뿐입니다.

정말로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시원하게 빨리 진상규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위원장 임채정 정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고양 덕양을 출신 최성입니다.

개인적으로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왔고 또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했던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은 참으로 크다고 봅니다.

국내외의 최첨단 인공위성 촬영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수력발전 발파실험이 핵 실험설까지, 또 김정일 정권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르는 내부의 큰 사건인 것처럼 비춰지는 이러한 상황들은 북한에 있어서 얼마나 빨리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

는 것보다는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부장관님과 외교안보 라인에 계신 분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국내외 보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정은 아니지만 조심스런 결론을 낸 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접근이었다고 우선 말씀드립니다.

장관님께서 오늘 보고말씀을 해 주시면서 아리랑1호를 통한 촬영 결과 대규모 폭발은 없었다는 단정에는 동의하지만 백남순 외상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력발전소를 위한 폭파 내지는 발파실험 가능성까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 이번 사건이 증폭되게 된 배경 중의 하나가 앞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9월 12일자 연합뉴스에 베이징발 북한 정통한 소식통이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북한 사정에 밝은 중국 베이징의 한 소식통이라는 근거 없는, 출처가 불분명한 이 정보가 9일 김형직군에서 대규모 폭발이 있었고 또 그날은 공교롭게도 건국기념일이고 중국과 가까운 지역에서 폭발이 있었다 이런 대단히 6하원칙에 입각한, 그러면서도 실제 추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추론이 나올 수 있는 이 정보들이 나왔는데 통일부에서 파악하시기로 이 정보의 소스나 내용은 근거 있는 또는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정보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글쎄, 통신보도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잘 못 하겠고요. 그 보도 이후에 기자브리핑 현장에서 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저희가 접수한 보고를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 징후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되겠다. 그러나 핵실험 운운하는 외신보도는 근거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 드린 것입니다.

○최성 위원 앞서 제가 정보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국정원 등 정보기관에서 상당히 주목했던 정보이고 또 한 국내의 인터넷 언론에 소개되었던 지난 5월 7일자 조선중앙통신에 나온 보도내용 즉 양강도에 삼수발전소가 건설된다는 내용하에 이 당시 삼수발전소를 위해서 내각총리도 참여를 하고 또 김정일 위원장의 직접 지도하에서 백두산 지역의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발파실험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최성 위원 이러한 보도내용이 이 지역에 있어서의 수력발전을 위한 발파실험이라는 결과적인 보도내용과 어떤 의미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말씀하신 보도내용은 북측의 공식보도입니다. 지난 5월에 양강도에 삼수발전소 관련해서 조선중앙통신이 그와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은 전력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최근에 중소형 수력발전소 건설에 치중해 왔습니다. 삼수발전소 건설도 양강도 등 지역의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삼수발전소와 관련된 보도내용은 사실에 입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개인적으로 북한의 경우는 다른 정상적인 국가와 달리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수량의 부족이라든가 입지조건 때문에 이 지역이 수력발전소의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시각은 저는 북한적 특수성을 자칫하면 외면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혁명적인 군중노선, 의지적 측면 또 그것이 백두산이라는 상징적 지역 이런 측면에서 김정일이 결단하게 되면 그 부분들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통해서 남포관문처럼 또 대역사라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면 이러한 자료나 정보에 대해서 좀더 통일부에서 천착해서 이런 사안이 나올 때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최성 위원 관련해서 이번 북한의 일련의 사건들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례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99년의 금창리 사찰 때도 인공위성 사진이 발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인공위성 사진으로 미국에서 조사단이 가고 결국 텅빈 동굴만을 발견하고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까지도 갔던 이런 상황에서 비추어 본다면 역시 이번 사건도 근본적으로 대북정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그에 대해서 현명한 대북정책을 펴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역시 접근이 쉽지 않고 폐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그것을 사실에 입각해서 규명해 내는 일

이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남북 간의 인적 왕래 또 정보소통이 과거 냉전기에 비하면 획기적인 수준으로 달라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남북 신뢰관계가 쌓이면 그러한 불필요한 의혹이 증폭되는 일들은 아마 많이 줄어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 최근의 제4차 6자회담과 관련해서 그리고 북미관계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 있는 흐름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북한은 조총련계 신문인 조선신보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련의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의 지속 때문에 실제로 대선 이후 6개월 정도가 지난 내년 5월쯤에나 근본적인 북미관계를 풀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의 케리 후보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부시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현재 부시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6자회담은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직접 북미 간에 대화를 하겠다는 이런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꼭 이번 사건과 직접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북한과 미국이 미국 대선 전에 4차 6자회담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북한의 제4차 6자회담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장관님께서 좀 예측을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6자회담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11월 미국 대선 전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로서는 6자회담이 표류하거나 좌초하는 것은 미국 측의 이익에도 북측의 이익에도 또 이 지역의 이익 특히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최성 위원 그런 점에서 저는 장관님께서 이번 방미 과정에서 미국 대선과 무관하게 제4차 6자회담의 필요성을 미국의 조야에 인식시키고 합의했던 그 성과는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4차 6자회담은 무조건 개최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틀 속에서 양자 간 대화가 내실화될 수 있으면 좋다고 보는데 NSC 차원에서라도 10월 초든 6자회담의 무조건적인 개최를 북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4차 6자회담 개최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북경 그리고 도쿄, 모스크바를 오가면서 유관국들의 협조를 통해서 북측을 여러 채널로 설득하고 4차 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망이 불투명한 단계에 있습니다.

○최성 위원 추가적인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영국의 외교부차관도 방북을 했었고 또 리장춘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 또 러시아연방 상원의장 등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국제적인 인사들이 방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제적 차원의 대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을 제4차 6자회담의 참여는 물론이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통일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교적 노력 또 구체적인 정보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이번에 영국 외무차관도 북측에 전략적 결단을 촉구했고 또 미국의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핵 문제 해결에 관한 국제사회의 원칙은 단호함을 충분히 전달했고 4차 6자회담에 나올 것을 적극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장춘 상무위원도 아마 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라예보의 총성이 세계대전을 초래했듯이 대단히 정보내용이 불확실한 북한을 상대로 하고 또 북핵 문제 또 원자로 실험 문제 다양한 미묘한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첩보와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급하고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대단히 지혜롭고 이성적인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는 비단 통일부뿐만 아니라 NSC 수장으로서 공개적으로는 말씀하기 힘든 국내외 언론의 보도태도 또 그와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좀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을 보다 차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 장관님이 지난번 이후에 두 번 나오셨는데 오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일단 아까 보고한 서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폭발설 자체가 우리 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특이한 형태의 구름은 자연구름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 관련된 발파가 있었을지는 지속적으로 확인 중이다" 결론은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은 이번에 있었던 이 일이 왜 이렇게 사실무근한 부분이 많은가, 대단히 과장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과 두 번째 앞으로도 이러한 정보능력과 대응능력을 가지고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부를 믿고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채정 위원장, 유선호 간사와 사회교대)

오늘 하나의 문제가 더 제기되고 있는데, 장관님 답변 들어 보면 우리 언론 때문에 마치 이렇게 시끄럽고 근거 없는 소동이 일어났다, 정부는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점이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언론 때문에 이런 근거 없는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특별한 정보도 없고 소스도 없습니다. 다만 보도된 것과 장관님 또 외교부장관님, 국정원장님이 국회에 와서 발언한 것들을 맞추어서 질의드리면 하여튼 이 폭발 건에 대해서 9월 9일 목요일 오전에 NSC에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고 하고, 그렇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 9월 9일 오전에 NSC에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NSC 상임위위원회에서는 그 문제를 다룬 게 아닙니다.

○김문수 위원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NSC의 실무자인지 몰라도 하여튼 "오전에 대통령께 서면보고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대통령께 대한 보고 시점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보도된 바입니다. 만일 보도가 틀렸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바로 잡을 건 잡으셔야 됩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김문수 위원 두 번째, 그다음날 9월 10일 금요일에 NSC 비상체제가 가동되었고, 이것도 다 보도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비상체제라고 부르는 것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김문수 위원 하여튼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틀 뒤인 일요일, 저도 화면에서 봤는데 오전에는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 장관님께서 언론에 브리핑을 하셨고, 그렇지요?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언론에 브리핑한 것은 아까 말씀처럼 우라늄과 플루토늄 문제를 35분쯤 했습니다. 베이징발 보도에 대한, 뉴욕타임스에 관한 기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간단히 세 줄로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김문수 위원 그래서 저는 장관님이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한 언급을 한 것으로 봐서, 통상적으로 장관이 언급한다 할 때는 국민들은 정보관계에 있어서 일단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관이 오죽하면 나와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그냥 보도가 아니라 장관이 직접 공식적으로 브리핑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때부터 유의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사실 관계를 하나 더 분명히 해 놓을 것은 그날 저희가 NSC 상임위를 개최한 것은 그다음날로 예정된 비엔나의 IAEA 이사회의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보고를 앞두고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다 강력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어서 긴급히 소집됐고, 충분히 논의해서 그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치 외신보도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 이미지를 주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목적으로 소집된 회의이거나 그 목적의 기자회견은 아니었습니다. 그 점도 분명히 기자브리핑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제 말씀은 언론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나라가 시끄러웠다 이런 것은 안 맞고요, 제가 거꾸로 말씀드려보면 국회의원들도 이것을 잘 안 믿어요. 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제공된 자료가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도 소략한 이런 것, 이것도 겨우 요청해서 며칠 늦어서 뒷북 중에도 아주 대충 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다, 사실 우리가 정부를 더 신뢰하게 되고 그동안 왜 이런 것이 일어났던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지지 않고 여전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장관님의 여러 가지 태도라고 할까 또 장관님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정부가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개선된 것이 없다, 그래서 회의를 열면 상호간에 더 진전되고 의혹이 해소되고 자료가 제공되고, 필요하다면 비공개 얼마든지 좋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도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저 해명 내지는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기……

또 분명히 한미 관계 공조가 잘 안 된다고 봐서 제가 지난번에도 구체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위성에 대해서도 아리랑 1호, 옵뷰, KH-12, 라크로스, DSP 조기경보위성 전부 단계별로 다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고 구름이 낄 때 판독이 안 된다든지 이런 한계가 많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를 일정하게 협조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확보 자체가 아직까지 어려운 상태 아니냐, 그 점은 맞지요? 그렇지요? 우리 독자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한미 간에 공조를 통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제 말씀은 보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현실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다 나온 것입니다. 비밀자료도 아니고 다 보도된 내용 아닙니까?

보면 우리의 아리랑 1호 해상도는 6.6m, KH-12는 0.15m입니다. 40배 아니라 넓이로 따지면 훨씬 형편없는 해상도밖에 없다 말이에요. 또 구름 낄 때는 판독이 안 되는데 미국의 라크로스는 구름이 끼어도 뚫고 해상 가능하다, DSP 같은 경우는 열감지 센서가 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공조가 중요하다고 봐서 반미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게 생각하고 한미 공조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면 이것을 수구꼴통이다, 친미주의자다, 저까지도 욕을 하는데, 사실 저는 반미운동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까지 된 사람인데, 전부 독선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현실과 동떨어진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된다, 저는 이 점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론은 놔두고 어쨌든 현재 9월 14일에 장관님이 통외통위에 와서 발언하셨을 때, 그것도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파월은 이미 북한이 설명하는 것하고 미국이 자기네들이 본 것, 즉 위성을 통해서 본 것과 일치한다, 벌써 불을 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님은 여기 오셔 가지고 "수력발전소 이외의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한다" 아직까지 못 봤으니까,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료를 안 가지고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고, 그것이 더구나 한반도 내의, 우리 헌법상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못 가졌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요.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상업계약을 한 옵뷰에서 획득한 위성사진을 입수해서 여기서 부족한 것을 더 구체적인 미국의 KH-12나 라크로스나 DSP 위성사진을 미국에 요청했는데,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한미 간에 이 문제 관련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는 충분히 서로 주고받고 확보해서 분석하고 판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한미 정보 공조가 전혀 안 되거나 아니면 미흡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마는 미군 당국의 고위책임자도 우리 국방 고위책임자에게 적극 협조하겠다 또 협조하고 있다, 이런 확인을 한 바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 공조를 안 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문수 위원 공조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늦어진다는 것인데,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정보획득 능력이 부족하고 대응능력이 부족한 것이지 언론에 책임을 돌리거나 또는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요.

아까 제가 물은 KH-12, 라크로스, DSP 조기경보위성에서 수집한 위성사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용까지 보자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방금 그런 식의 답변 말고 공개하기 어려우면 대면으로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다음은 김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웅 위원 정동영 장관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장관께서 양강도 폭발 관련해서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폭파라고 북측이 해명한 것에 대해서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김원웅 위원 다른 가능성에 대해 주시한다고 말한 정보의 근거가 혹시 있는지……

○통일부장관 정동영 9월 14일 당시에는, 오늘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체적 사실 관계를 정확히 규명할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어떤 류의 단정적 답변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론으로 추가 정보가 없는 상황하에서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최초에 이 문제가 제기된 근거였던 구름사진이 자연현상으로 판명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포함해서 그런 가능성에 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원웅 위원 그런데 정 장관께서 그 말씀을 하신 같은 날에 일부 언론에 보면 장관님을 제외한 다른 고위당국자들도 줄곧 수력발전소 발파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폭파지점과 발전소 건설지점이 90㎞나 떨어져 있다는 언론보도가 같은 시점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던진 이 말이 오히려 북한이 수력발전소를 위한 폭파였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믿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김 위원님,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확인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맨 처음 제기됐던 폭발사고의 징후일 수 있다는 구름사진의 존재와 북측이 설명한 발파 작업이라는 발표, 이것만이 확실한 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발파작업일 가능성이 있고 그 사실 여부에 대해 파악해 보겠다는 것과, 그리고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주시하겠다는 것은 어제 국가정보원장이 밝힌, 역시 두 가지입니다. 김형직군 인근 지역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발파 가능성과 그리고 당시 기상상황으로 보아 특이한 형태의 자연구름일 가능성이 있으며 지속 추적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추정해 나갈 사실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북이 설명한 발파작업이 사실 관계인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였고 또 구름사진이 폭발사고와 관련 없는 자연현상일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원웅 위원 장관님 말씀 뜻은 이해하는데요, 사실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속에 있고 남북 상호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시점인데, 저는 장관님께서 하신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주시” 이런 표현을 그다음 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면서 마치 우리 정부가 북한의 수력발전소 폭파라는 입장 표명을 믿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로 비쳐지는 것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책임을 맡을 정 장관 입장에 신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잘 알겠습니다.

○김원웅 위원 그리고 오늘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한미 간의 대북 정보교류에 이상 징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질의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아리랑 1호와 미국의 군사첩보위성들 간의 질 차이나 여러 가지 차이에 대해서는 국력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의 책임만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함께 분발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를 우리 정부에게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마치 우리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할 말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통해서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미국이 협조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질의와 또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이 있거든요.

중앙일보인가 여하튼 신문사설에 “지금 한미 간의 대북 정보교류에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반미하면 어때’라는 식으로 나간 결과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통탄해 마지않는데 그 말은 우리가 미국 말 잘 들어서 협조를 잘 받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식으로, 그런 사대주의적 관점이 바탕에 깔려 있는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저도 여러 차례 답변드렸습니다.

한미 간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보협조가

진행되고 있는 데는 추호도 이상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번 사안에 관해서 한미 공조가 안 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원웅 위원 미국이 같은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인데 맹방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한국이 필요한 자료를 만족스럽게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어떤 특정한 정보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입장보다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익에 맞춰서 특정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저는 미국이 자기들 국익에 따라 정보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의 결정까지도 우리 정부 탓이다 우리가 굽실거리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통탄스럽다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한미 공조가 마치 한미 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정보교류가 안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전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관계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전면적 협력관계에 있다고 믿고 있고, 또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정보교류협력이 지장을 받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원웅 위원 이른바 한미관계가 지금 우리 사회의 사대주의적 수구세력들이 주장하는 식으로 아주 우호적일 때, 지난 94년 김영삼 정권 때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만약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우리 민족에게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생기는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도 한국 정부와는 전혀 사전에 상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 문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제기할 때는 침묵을 지키던 세력들이 지금 와 가지고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를 우리 정부에게 충분하게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굽실거리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우리가 자주적 노선을 택하고 할 말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근의 양강도 문제도 남북 간에 이미 핫라인도 있고 전화통지문도 있으니까 고위급 대화채널이 제대로 작동되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에 매달리는 것보다도 이미 가동되고 있는 핫라인이나 전화통지문이나 고위급 대화채널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끔 정 장관께서는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이른바 양강도 폭발사건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부각이 된 사람이 지금 평양에 가 있는 라멜 영국 외무차관일 것입니다. 그리고 백남순 외무상이 분명히 라멜 차관에게 폭발사고는 있었다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8명의 외교관이 현장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방문을 끝내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번 사건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라멜 영국 차관에게 단순히 백남순 외무상이 그냥 수력발전소를 위한 폭파였다 이것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이 평양을 갔던 영국 외무성 직원이 서울에 와서 외교부와 통일부에게 과정을 설명했었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

○권영길 위원 방문 안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할 계획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미 외교부와 통일부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 와 있지요? 저는 지금 서울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라멜 외무차관과 평양에 갔던 사람이 이것은 한국 정부에 시급히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하고, 그 직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아시아 담당인지 한국 담당인지 과장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저희가 만나게 되면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아직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권영길 위원 저는 이미 우리 정부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을 수 있겠습니다.

라멜 차관이 우리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당초에는 평양에 갔다 서울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양쪽 다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쪽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외무차관 방문 스케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당초 계획으로는 이게 급박하게 잡혀진 것이 아니고, 영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역할을 하고 싶다 그리고 할 역할이 있다고 판단하고 평양도 가고 서울도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직원만 왔기 때문에 라멜 차관은 바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 있으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당초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질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선 평양을 가서 6자회담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6자회담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것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중요 의제로 설정했었고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울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우리와 그런 의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도 주문한 게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인지,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대답을 안 하시니까 질의할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한미 정보공조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정보 수집력의 우월성을 많이 강조했는데 저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공위성과 우리 인공위성이 촬영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야 앞으로도 이른바 양강도 같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천지가 뒤흔들리는 것처럼 인식을 안 하게 될 거거든요. 미국 정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대체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정부의 정보만으로는 깜깜 절벽인가? 아니다, 미국의 정보력이 대단하고 미국 첩보위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수집하는 정보가 정확하고 분량도 방대하지만 그러나 우리 정보력으로도 북한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고 대처를 할 수 있다, 만약의 사태가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 군과 정보기관도 나름대로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평가에 관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예산도 투입해 왔고 능력도 많이 향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또 한미 간의 정보 협력·협조를 통해서 보완하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처럼 우리 안보당국으로서는 미국 없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나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권영길 위원 남북의 특성상 미국이 수집하지 못하는 정보도 우리가 수집하고, 또 그런 부분은 미국에 제공도 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래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권영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폭발사건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핵 실험으로 연계가 되고 우리 안보체제와 바로 연결시키거든요. 아까 장관께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에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핫라인을 최고위급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폭발사고가 났을 때도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북한은 남쪽을 적화통일하려고 끊임없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바로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가장 중요한 게 현재 북한의 상황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미국 없이는 안보 공백이 있는 것이고, 저도 일정 부분 부인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집단이

고 미국이 없으면 우리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억지력을 갖출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번 국방장관께서도 비대칭무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우리 군사력이 우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항상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것이 풀리지 않는 한 해프닝일는지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위원 임종석 위원입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오늘 이른바 양강도 폭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 미국의 파월 국무장관이 수력발전 설비를 위한 발파작업이었다고 브리핑을 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조찬간담회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발파 가능성과 특이한 형태의 자연 구름일 가능성으로 보고 있고 지속 추적해 나가겠다는 발표가 되고 나서 언론도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해프닝으로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양시론·양비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해프닝으로 밝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가 무능하다거나 한미 간에 협조체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거나 심지어 어느 위원님께서는 노무현 정권의 한계를 보여준다거나 하는 식의 발언은 저는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명백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국회가 좀더 많은 정보를 제때 제공받고 필요한 토론을 정부와 긴밀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도 객관적으로 문제를 접근해 가면서 사실을 확인하고 오히려 잘못 왜곡된 정보들은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국민들의 의혹을 걷어 주는 역할을 할 때 저는 그런 수준 높은 정부와 국회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상업위성 옵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상 징후를 포착한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임종석 위원 그것이 9월 9일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임종석 위원 그리고 우리가 미국 측에 통보한 것은 당일인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구체적인 일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종석 위원 그리고 그제 장관님 답변에서도 그랬고 오늘 보고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9월 8일 감지된 지진파 등과의 상관성도 유의하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관측 내용을 보고받은 것도 그 시점인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 전입니다.

○임종석 위원 9월 8일이기 때문에 이 시점쯤에는 이미 정보가 종합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임종석 위원 그리고 진원지가 사고지점으로부터 100㎞ 이상 떨어져 있다는 것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임종석 위원 그래서 정확한 원인은 파악이 되지 않지만 이미 언론에 터져 나오기 전에 이것이 적어도 핵 실험과의 연관성이 있는 안보상 위험한 문제는 아닐 것으로 잠정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봐도 좋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임종석 위원 12일 오전에 언론에 최초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보도가 나왔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신보도고 하나는 통신보도입니다. 정확한 경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석 위원 이 문제가 잠정 판단에 의해서 따로 NSC회의를 열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봤지만 기왕 NSC회의가 열린 이상 또 외신과 우리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된 이상 여기에 대한 브리핑을 하셨던 거겠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임종석 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발사고 징후가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으며 외신의 핵 실험 가능성 보도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분명하게 이미 12일날

언론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이 13일자 한 신문의 보도입니다. 이게 1면 보도입니다. 이미 아무 관계없는 지진 보도를 1면에 통으로 털어 써서 마치 2.6도 지진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구름 형태의 사진 등이 무슨 큰 연관이 있어서 대형사고가 난 것처럼 1면에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아닐 것으로 부인한 상황이었는데도요. 이게 3면 통으로 쓴 기사입니다. 이것이 4면을 통으로 쓴 기사입니다. 소위 10월 핵실험설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3일날 아주 신속하게 북의 백남순 외무상이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장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미 현지를 방문하고 있는 영국의 외무차관에게 현장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이 문제를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까지 미국의 공식 입장은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나 파월 국무장관 등 핵 활동과 무관하다는 입장 외에 따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있습니까? 제가 신문에서 본 것은 없었는데요. 정부 측에 따로 통보해 온 것이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없습니다.

○임종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신문에는 전부 잦아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다음 날짜 신문입니다. 댐 발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식의 보도인데 이게 1면입니다. 한 탈북자의 말을 빌려서 2면에 도랑 같은 하천에 무슨 발전소냐고 쓰고 있습니다. 3면을 통으로 털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기된 국민들의 불안을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지어 '노무현 정권의 한계다' 이런 식은 지나친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14일 파월 국무장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의 발표와 확인한 것이 거의 같다, 또 발전소 건설을 위한 폭파로 보인다는 식의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후이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거의 비슷한 결론을 냈고, 아침 조찬이기 때문에 바로 몇 시간 뒤인 한 서너 시간 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밤 사이에 정보가 종합되었다면 파월 국무장관이 이야기한 시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찬에서 동일한 내용을 밝히고 이것이 해프닝으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장관께서는 언론의 책임이 아니고 언론에 책임을 돌릴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신중한 말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왜곡되거나 과장되어서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차분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얘기를 할 때마다 그것이 또다시 왜곡되고 과장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덮어 둔다고 그냥 사라질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오늘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라도 또 공식적인 입장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야 나중에 지난 뒤에라도 책임 있게 확인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존중하고 언론에 책임을 돌리지 않는 책임 있는 태도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통일부 관련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왜곡·과장 보도나 정정보도에 대해서 차분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내는 노력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즘 인터넷 매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 나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범 위원 본 위원은 정부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대응이 적절치 못하고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은 참으로 소망스러운 일입니다.

(유선호 간사, 임채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북관계를 비롯한 이 나라의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원하든 원치 않든 미국의 안보·군사적 도움 속에서 무임승차를 해 오다가 이제 와서 자주적으로 해 보자는 기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안전보장 문제는 다른 문

제와 달라서 순간적으로라도 한치의 오차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의 의구심이 생겨도 이른바 우리가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나라,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와 모든 정보를 교환해서 완벽하게 대책을 세워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문제도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과 오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정보수집과 분석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맹국의 도움을 좀더 받아서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미리 냈다면 이런 혼란은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장관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미국과의 관계는 아주 좋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 나라 사이에 껄끄러움이 조금도 없다면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미국 측에 전화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고, 또한 미국 측에서 우리 측에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한다 하는 정보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사건이 생긴 지 나흘이 지나도록 이상한 구름이다 뭐다 하는 얘기는 안 나왔을 것입니다. 원만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또한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동포애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거둬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지원할 만큼 지원하고,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감싸는 태도를 취해 왔고 지금도 취하고 있는데 핫라인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름대로 우리 정부 측에서 저쪽에 전화해 가지고 '구름이 이상한 것이 떴는데 이것이 뭐요',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혹은 저쪽에서 '이런 것을 발파했는데 당신들이 오해할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확인해 준다' 하는 정도의 관계까지는 남북한에 신뢰가 구축되어 있다면 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양쪽이 다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NSC에서 옵뷰 위성사진을 받아 가지고 들여다보다 이상한 구름이 보이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하다가 폭발징후가 보인다고 12일에 장관이 처음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9일에 받은 인공위성 사진을 놓고…… 아리랑 위성은 아예 찍지를 못한 것은 다 확인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국민들한테 아리랑 위성이 있는데 구름 때문에 못 찍었고 구름을 뚫고 들어가서 찍는 미국의 옵뷰 위성사진을 받아 보니까 이상해서 9일에 폭발징후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특이한 구름 현상이지 폭발은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간단하게 국민이 이해하고 언론도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는데 언론도 많은 기사를 쓰다 보면 오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관께서도 언론계에 오래 계셨지만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서너 가지 있습니다.

의도된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자사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지 않으면 의도된 보도는 일반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잘못된 정보에 의한 잘못된 보도도 흔히 나옵니다. 정보제공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개는 민간이 아니라 정부나 정부기관이나 정부당국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잘못된 보도가 되었다면 정부로서는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이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하고 해명을 해 주면 그 기사는 이미 그것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데 뉴욕타임스에 보도가 나오고, 그 시점이 우리가 이상한 구름이라고 했던 시점이에요. 똑같은 옵뷰의 위성사진이 뉴욕타임스로 들어가서 뉴욕타임스도 분석하고 국무성에 확인하니까 누가 확인을 안 해 줬겠지요. 그러니까 핵폭발 아니냐 하고 기사를 썼던 것입니다.

그 타이밍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상한 구름 모양이 보이고 폭발징후가 보인다고 언론으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의혹을 제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사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외신도 인용하고 내신도 인용하고 탈북자도 인용하다 얘기가 그렇게 확대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신속하게 사태를 파악해 가지고 정확하게 대응해 주면 이런 식의 오보가 꼬리를 물고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언론사가 기사 쓰는 데 정보제공자 없이 정보에 근거하지 않고 기사를 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차단하는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고,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책임 있게 얘기를 해 줄

수 있으려면 정부가 정보의 수집과 분석과 대응에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섰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 질의합니다.

지금 NSC 상임위원장이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박성범 위원 말하자면 이 나라의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서 마지막 대통령에게 결심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온 국민이 한 사람에게 안전보장, 말하자면 3500만이 재산과 생명을 다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NSC에서 정보분석의 잘못과 대응의 잘못이 나온다면 이 나라 백성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인데 만약 전쟁 발발의 징후가 나타났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에 시간을 끈다면 이 백성은 누구를 믿고 사느냐는 것이에요.

장관, 답변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보에 관한 사항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보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중요한 것이 신중성입니다. 확정적으로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전에 유지되어야 할 철칙은 신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정부는 신중한 기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폭발설이라는 사안 자체가 더더욱 신중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오늘 현재까지 판단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진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는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진 정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진 정보 이외에 추가 정보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박성범 위원 NSC에서 옵뷰 위성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판독해 볼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때 어느 채널을 통해서 미국 측에 문의했습니까? 그 위성사진은 미국 쪽에서 받은 것이니까 미국도 그 위성사진을 받았다고 생각해야 될 것이고 NSC로서는 국방성이나 국무성에 대고 '오늘 받은 사진에 이상한 것이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정도의 대미접촉은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조를 시작한 측은 우리 측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진에 관한 판독은 NSC 상임위원회에서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판독하고 분석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 견해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박성범 위원 북한과의 관계도 지금쯤이면 저쪽도 우리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남쪽에서 보도를 통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가 마구 터져 나올 때 남쪽 당국자한테 연락해서 '그것은 오해다',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정도의 신뢰는 이제는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남북관계는 외형적인 대화만 중단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저쪽에서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더 가야 합니다. 남북 간에 신뢰구축이 더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서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즉시 남북 간에 의사소통과 정보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과 화해협력이 더욱더 지속되어야 하고 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박성범 위원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박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규 위원 정동영 장관님, 국회의원 하시다가 장관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정보분석국장님 나와 계세요?

○통일부정보분석국장 성남기 예.

○김혁규 위원 정보분석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상업용 인공위성으로부터 제일 처음 사진을 접수받았지요?

○통일부정보분석국장 성남기 그런 사항은 NSC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혁규 위원 통일부 정보분석국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합니까?

○통일부정보분석국장 성남기 예, 상임위원회에는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해서 잘……

○통일부장관 정동영 통일부의 정보분석국장 업무는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혁규 위원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정보분석국장 성남기 유관부처의 정보자료를 수집해서 통일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규 위원 북한에 대한 정보는 전혀 입수도 하지 못하고 분석도 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정보분석국장 성남기 유관부처의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 통일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규 위원 통일부 나름대로의 정보분석 자체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정보분석국장 성남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NSC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희 부 내에서……

○김혁규 위원 어떤 정보분석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받고 합니까? 정보분석국의 업무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질의입니다.

○통일부정보분석국장 성남기 저희 정보분석국 업무는 북한 내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각종 정보를 유관기관과 협의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김혁규 위원 주로 어떤 방법으로 북한의 정치·경제·문화·사회 분야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정보분석국장 성남기 북한의 방송, 북한의 통신 내용, 그리고 외교부 차원에서 나오는 전문, 그리고 저희 통일부 소속 재외주재관, 통일관, 그리고 유관부처에서 나오는 정보사본 등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혁규 위원 저는 정보분석국 자체가 북한의 여러 정보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기능을 가진 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과는 다르군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진 위성사진이라든지 안보분야의 정보수집과 분석은 국방당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혁규 위원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인공위성 사진을 돈을 주고 사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군당국과 협조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혁규 위원 누가 '이것이 폭발사건이다'라고 이상한 분석을 해서 미국에 분석 의뢰를 했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국방당국에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위성정보와 기타 정보채널 등을 통한 수집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독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혁규 위원 국방부에서 했든 어느 부처에서 했든 그 사진을 보고 이상하다고 판독을 한 자체가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이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김혁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는 영국 외무차관에게 수력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폭파한 사건이라고 발표를 했고, 또 2000년도에 찍은 그 지역의 사진과 요즘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볼 때 아무 흔적도 없고, 사실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저 자신도 혼란스러우니까 국민들은 더욱더 혼란스러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진을 보고 판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빨리 결정을 내려서 국민들에게 알려 줘야지, 사진을 보면 아무런 흔적이 없는데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고 나온다는 것은 NSC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9월 9일 판독된 사진과 그 이후에 추가 확보된 사진에서 지상에서의 이상 징후가 없는 현상과 관련해서 볼 때 현재로서는 잠정적으로 9월 9일 위성사진은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한 구름일 가능성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분석과 결론을 빠른 시일 내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규 위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우리나라 인공위성이 몇 개 정도 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전 세계적으로는 450개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혁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남북 간에는 상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인공위성을 띄우면서 구름이 낄 때는 촬영이 안 되고 구름이 안 낄 때

만 촬영이 가능한 인공위성을 띄웠다는 자체가 공무원들에게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없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힘이 없지만 인공위성에 구름이 끼었을 때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부착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구름이 끼든 안 끼든 촬영을 할 수 있고 북한의 정보를 캐치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인공위성을 띄워야지 반쪽밖에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띄웠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 정보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의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면 정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로 듣는 것이 라디오고, 북한 텔레비전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언론의 통제하에서 나오는 기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북한의 정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구름이 끼어도 북한을 촬영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올려야 되겠다는 대응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기술적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좀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혁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돈만 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한의 모든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선 국회의원인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단 30분만에 끝날 수 있는 것을 두 시간, 세 시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정말 비생산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북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매우 즐기고 매우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문제라든지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실익적인 문제, 실리적인 문제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어느 때든지 촬영이 가능한 인공위성을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미국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북한의 정보를 캐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이번 경험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다음은 최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崔炳國 委員 수고 많습니다.

같은 질의가 중복, 삼복, 반복,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명백하게 30분만 보고하고 결론을 내면 될 것을……

지금 이 문제가 국회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에 대해 근본적인 대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장관님의 답변이나 이때까지의 보도에 의하면 양강도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 자료를 수집한 것은 우리 정부였다. 그래서 이것을 한미 간에 정보 공조 차원에서 긴밀한 연락을 해서 분석을 다 해 봤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핵폭발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무엇인지 몰라서 계속 연구분석 중에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崔炳國 委員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처음 수집을 해서 언론에 집중보도가 되었습니다. 언론이 너무 추측·과장 보도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그 진원지는 정부였습니다.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제일 처음에 수집한 곳이 외국이었다면 언론에서 다른 외국에서 정보를 수집해 왔는데 그것이 과장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먼저 수집한 것은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측기사가 막 나오도록 한 것은 정부 대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미 간의 정보교류든지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 외교적인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또 여태까지 하는 방법으로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난 12일에 콘도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폭발이 핵실험일 가능성을 가리키는 징후는 없다. 모종의

화재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4일에는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발파작업이었다는 북한의 설명에 대해 우리가 본 것과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대변인도 '북한 측의 설명이 타당성이 있다. 핵과 관련된 활동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조가 잘 되고 있다면 오늘 이 정도 시점에서의 정부의 발표는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지하에 모종의 시설을 만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군사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수력발전소를 만들고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안심해라' 이렇게 발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지금 무엇인지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글쎄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장관님, '핵실험은 아니지만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있어도 별 것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안심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맨 처음에 보도되었던 징후로 보이는 구름에 대해서 그것이 자연현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북측이 설명한 대로 사진을 촬영한 지역으로부터 약 90㎞ 떨어져 있는 삼수지역의 발전소 건설을 위한 발파작업이었다는 북측의 설명과 관련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현장에 간 사람들의 보고가 나오게 되면 보다 더 확실하게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崔炳國 委員 그런데 최초에 발표할 때에는 폭발되었다는 지점에서 거대한 버섯구름 같은 것이 나타났고, 또 우리의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 리히터 지진계로 2.6인가 하는 지진파를 감지했고, 등등 대단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신문에다 저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보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보 분석 능력으로는 아직까지 확실히 모른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최첨단 장비도 가지지 못했다. 우리가 5000여억원을 들여서 인공위성을 몇 개 확보했지만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화상이 더 선명하게 나오는 것을 앞으로 1조가 더 들더라도 다시 확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야 되지 '우리는 한미관계를 계속 잘 하고 있는데 우리 판독은 아직까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아주 모호하게 들리는 말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성으로 사진 찍은 것은 부정확하고 잘 몰라서 미국하고 협조를 하는데 미국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투자를 해야지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국가안보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니까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마는 제가 장관님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NSC의 상임위의장으로서 국가안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고, 그렇다고 알고 있다고 하기에는 국방에 대해서 큰 비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꺼림칙한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에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최고 대표자까지는 핫라인을 가동하도록 촉구하겠다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든지 안보체제를 좀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대책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핫라인이 가동될 수 있도록 남북간에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崔炳國 委員 지금 우리 자존심도 상하지 않습니까? 평양에 와 있는 외국 8개국에서는 현지를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역대 무슨 정권에서는 정보기관을 정치적 목적에 활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혁한다고 해 가지고 정보기관을 정비하면서 전문가들을 전부 쫓아내서 인적인 요소를 통한 정보수집 능력이 확 떨어진 것이 아닌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최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準杓 委員 장관님, 아까 안보문제는 신중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한 7일, 8일이 지나도 미적거리고 있다…… 미적거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아직 신중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洪準杓 委員 안보문제는 신중성이 아니라 신속성입니다. 위성을 띄우고 조기 경보체제를 수십억 불 들여서 왜 하겠습니까? 신중이 아니고 신속성입니다.

양강도에 폭발사고가 있었던 것입니까, 없었던 것입니까? 나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폭발사고가 있었다고 단정을 합니까, 없었다고 합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최초에 구름사진에 대한 관계기관의 판독은 이것을 폭발사고의 징후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판독 잘못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洪準杓 委員 처음에는 구름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진파가 있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진파가 사고지점으로부터 100㎞ 이상 떨어진 지역이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洪準杓 委員 그러면 사고현장에서는 지진파가 없었다는 것이네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사고현장에서 100㎞ 떨어진,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洪準杓 委員 구름이 형성된 부분에서는 지진파가 없었다는 것이네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洪準杓 委員 그런데 폭발사고가 있었다느니, 1000㎏~2000㎏ 화약이라느니, 북한의 수력발전을 위해서 폭발을 했다느니 이 말이 왜 나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언론에 책임을 떠넘길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정부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洪準杓 委員 정부야 아는 것이 없으니까 발표한 일은 없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발표한 것 이외에 아는 것은 없습니다.

○洪準杓 委員 답답한 것이 이것입니다. 장관님은 아까 안보문제는 신중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신중해 왔다고 하는데 지금 신중성의 문제가 아니고, 9월 9일 이 사건 터지고 오늘이 16일이면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안보는 신중성의 문제가 아니고 신속성의 문제입니다. 신속하게 파악을 하셔야지요.

지금 NSC 산하기관에 들어가는 국가예산이 1조가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성 사용하는 것이 아리랑위성이라고 표면상으로는 내세웠지만 인공위성 해 가지고 기관에서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한국에서 먼저 알았다. 그래서 미국에 제공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은 바보입니까? 미국은 위성을 한국보다 몇 개 더 띄웠습니까? 미국에서 이것을 파악을 못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미국이 훨씬 위성을 많이 띄우고 있습니다. 북한 상공을 넘어가는 위성 촬영도 한국에서는 아리랑위성이 하루에 한번 하는데 제대로 촬영이 안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다른 위성이 서너 번 합니다.

존경하는 임종석 위원도 한국에서 알아서 그것을 미국에 제공해서 논쟁거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미국 측에서는 알고도 자체 판단을 하고 이쪽에 안 알려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셔야지 마치 우리가 여태 잘해 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주일이 지났는데 우선 폭발사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부터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두 번째 북한에서는 이것이 수력발전소 목적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북한 백남순 외무상의 이야기입니다. "양강도 지역 폭발은 거대한 수력발전소 계획의 일환으로 산악지역을 계획적으로 발파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그 거대한 수력발전소를 만들 만큼 그런 수자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언론보도만 보더라도 1년 강수량이 700 몇 ㎜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북한에 거대한 수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세울 만한 지역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지역 바로 옆에 대포동 미사일 기지 있지

요? 그렇지요? 이 폭발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 대포동 미사일 기지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대포동 미사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洪準杓 委員 북한에서는 이미 발파작업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 발파작업이 거대한 수력발전소를 만들 산 하나를 뭉갰다고 했어요. 그런 취지의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폭발사고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폭발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폭발의 목적이 수력발전이라고 북한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지금도 장관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폭발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보고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북한이 폭발사고가 있었고 아까 임종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까지 가보자 이렇게 했다면 자신이 있어서 하는 소리일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슨 폭발사건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게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일주일이 넘어서 하는 보고가 폭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 알 수가 없다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장관님이 NSC의 상임위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장관님이 국정원 독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정원 같은 데서 휴민트(humint), 말하자면 인적정보하려고 돈을 얼마나 씁니까? 엄청나게 쓰지 않습니까? 벌써 1주일 되었으면 어떤 식으로든 이 인적정보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했어야 됩니다. 파악을 하고도 이런 보고를 하는지 파악을 하지 못해서 이런 보고를 하는지 참으로 국회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서 우선 이것만 단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폭발사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신속성 중요합니다. 동시에 신중성은 그보다 더 중요하면 중요했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양강도 지역 폭발은 수력발전소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산악지역을 계획적으로 발파한 것이다 하는 북측의 발표문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외교관들이 현장 방문을 하고 오면 보다 상세하고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최초에 의혹이 제기되었던 구름사진 그 현장은 양강도 월탄리 인근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지금 발전소지역…… 오늘 아마 현장 확인한 발전소가 구체적으로 삼수발전소인지 그것도 아직 확인은 안 됩니다마는 삼수발전소라면 그 구름사진이 있던 지역으로부터는 약 90㎞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최초 의혹의 단서였던 구름사진과 그리고 북측의 발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종합적으로 오늘 폭발이다 아니다 뭐다라고 확정짓기에는 아직 빠진 부분이, 완성되지 않은 정보의 조각이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洪準杓 委員 장관님 지금 지진파가 된 게 구름이 형성된 지점에서 100㎞ 지점이라고 그랬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백두산 쪽으로요.

○洪準杓 委員 구름이 형성된 지점과 100㎞ 정도 차이 가지고는 지진파가 일어난 지점하고 구름이 형성된 지점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폭발의 후속으로 구름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못 한다 그런 뜻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진과 연결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진파가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발파인지 아닌지 아직 저희들은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洪準杓 委員 100㎞ 정도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구름형성은 그 위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것은 전문적인 분야가 되어서 제가 좀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100㎞ 떨어진 지역에서 일어난 구름이 이동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洪準杓 委員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범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외신을 통털어서 이게 굉장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중성을 내세워서 여태까지 폭발이 있었다 없었다 그것도 답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안보 문제는 신중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꼭 유념해서 직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홍준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성권 위원 이성권 위원입니다.

저는 이 몇 주간 우리 한반도가 그야말로 핵폭풍 전야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이 일 정도로 우리 한반도가 국제사회 속에서 불안정한 지역으로 더욱더 낙인 찍히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북한의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사건도 그렇고 물론 지금 해프닝으로 끝나느냐 아니냐의 논란 속에 들어가 있지만 북한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남한에서 있었던 과거 핵개발과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 IAEA에서 사찰단까지 파견될 정도로 우리 한반도가 그야말로 핵과 관련된 의혹의 덩어리로 많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저야말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김형직군 대규모 폭발사건과 관련해서 일단 먼저 개별적인 팩트 정보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상임위에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적어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은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먼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께서 언론보도 자료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이것이 해프닝으로 끝날 성질의 것인데 언론이 과대하게 포장을 하고 부풀려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 발언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의 본질과 현상을 거꾸로 해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 보고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솥뚜껑 보고 놀란 사람보고 왜 솥뚜껑 보고 놀랐냐고 몰매를 때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장관님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핵 의혹이 심한 나라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몇 나라가 있지요.

○이성권 위원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죠?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금 이란이 의혹을 받고 있고 당장 북한 핵 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색단계에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란도 있지만 국제사회가 가장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언제부터 핵 의혹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뿌리가 깊지요.

○이성권 위원 언제부터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우선은 94년 제네바합의를 통해서 1차 이 문제가 봉합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2002년 10월 켈리 국무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HEU 문제가 불거짐으로써 북한 핵 문제가 다시 증폭된 것이지요.

○이성권 위원 맞습니다. 적어도 북한이 90년대 초반부터 핵 의혹을 부풀리기 시작했고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의혹이고 그리고 북한이 풀지 않는 의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핵과 관련된 의혹을 북한 스스로가 안고 있기 때문에 작은 하나의 폭발사고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발생적으로 북한의 태도, 북한에서 나타난 사건에 대한 국제언론이나 국내언론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그 의혹을 풀지 않는 북한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언론의 해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이런 폭발이 발생하고 구름이 있거나 지진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제기를 했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본질과 현상을 거꾸로 뒤바꾸어서 생각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정부는 언론에 책임을 떠넘길 생각이 없다고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이것이 공교롭게 증폭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이 겹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깔고 있는 것은 결국 북한이 핵의혹을 풀지 않기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리고 언론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과 같은 태도였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언론의 태도에 일방적인 책임을 떠넘기는 일부 위원들의 태도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네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 분석력과 판독력, 두 번째로는 NSC의 대응과 관련된 문제점, 세 번째로는 정보 공개의 미비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남북 간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를 두고 얼마만큼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네 가지 틀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 이번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보분석과 관련해서, 지금도 홍준표 위원이 제기하셨지만 폭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제공해 오는 인공위성 사진, 장관님 다시 한번 확인 차 묻겠습니다마는 그 사진을 직접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제가 사진판독 전문가도 아니거니와 이 문제를 다루는 여러 가지 레벨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각종 사진자료를 포함해서 정보자료의 교환과 공동분석 협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아까 몇 가지 위성사진 자료 등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공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인공위성사진을 누가 보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관계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권 위원 관계 전문가라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국방 당국에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판독하는 부서도 있고 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로 구성되어 있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것은 현재로서는 정확히 파악도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보고할 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권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현대전이라는 것은 정보전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 것인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크게 충돌될 사안들도 정보전에 의해서 사전 방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 취득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정확한 인원을 얘기 안 해 주시니까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 판단력이나 분석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은 98년에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서 일본 영해에 떨어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일본에서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찰위성을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1월에 1기를 발사해서 성공했고 작년 2기 발사가 실패로 끝났고 원래 목표대로 하면 올해 여름까지 4기의 인공위성을 발사시켜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내각에 정보분석실을 설치해서 160명의 정보분석관을 둡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중동과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지역전문가들을 포진시켜서 정보 분석능력들을 함양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자주국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정보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김형직군 폭발사고에 대해서 폭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전혀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분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드렸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나름대로 제한된 여건과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정보 분석력에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지, 최선을 다하느냐 다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동안 우리 정부도 전력강화에 중점을, 정보 수집능력과 분석판독능력의 향상 쪽에 맞추어서 전력강화 예산을 집중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좋습니다.

일단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3일 북한 측은 수력발전소 건립 과정의 폭발이었으며 관영방송을 통해서 어떤 폭발사고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 측으로부터 사전 사후에 전달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없습니다.

○이성권 위원 전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이성권 위원 남북 간에 각종 대화채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화채널을 통해 가지고 북한 당국에 공식적으로 사실 확인과 해명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야말로 터무니없을 정도의 부풀리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사실 핫라인 설치는 남북 간의 합의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실무선에서의 통신선 설치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당국의 고위책임자끼리의 책임 있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핫라인이 개설되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북 화해협력, 교류협력이 조금 더 진행되고 앞으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열려서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성권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까지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을 그렇게 강조해 왔고 민족 공조를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 역시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해 왔는데, 북한 당국에서 이번 건과 같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확인 없이 사실상 국제사회에 이번 건이 수력발전소 건설이라는 것을 알린 것이, 13일 백남순 북한 외무상이 빌 라멜 영국 외무부차관에게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산악폭파작업이라고 처음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민족공조를 얘기하고 북한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단어를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것이 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알려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 자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한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이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선호 위원 유선호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각도에서 북한 폭발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종합적인 입장에서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와 또 어제 외교부에서 논란되었던 IAEA의 우라늄 문제를 보면서 현재 처한 상황을 과연 우리가 주도하면서 극복하고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그런 자신감을 어느 때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장관께서도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느끼시는 소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장관께서는 NSC 상임위원장이라는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라인을 연결하는 중심적인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차제에 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심기일전하고 뭔가 장래에 대해서 우리 운명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의 정보 분석능력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정보 분석능력이 저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강을 둘러싼 우리 주변의 외교능력이 전 국가적인 기관의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전방위에서 강화되지 않으면 이러한 정보가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통일부의 정보분석국이며 어제 외교부에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정책국이며 이러한 부서들이 정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기관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너무도 취약하고 또 그 기관들이 과연 4강의 일련의 행동방향들을 제대로 잡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과연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응자세에서부터 일관성과 침착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와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시고 이런 획기적인 외교능력 강화와 각 부서의 인원뿐만 아니라 정보 분석에 관련된 예산 확충을 위한 일대 획기적인 제안을 내 놓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소회를 듣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유선호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아서 이번 사건이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잘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책

들을 면밀하게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최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께서 언론의 역할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언론에 대한 문제제기는 통일부에 대한 일방적인 변호는 물론 아니고 또 언론에 전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의 질의도 아니었다고 봅니다.

정말 민족의 생존권과 직결된 주요현안에 대해서 해외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 무오류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대단히 중요한 평화문제가 흩뜨러져 버릴 우려도 있고 또 남북 화해협력 시대, 통일의 길로 가는 과정에서 언론의 중요성, 책임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제기는 상당히 온당한 제기라고 봅니다.

저는 저희들 운영 과정에서의 질의 형태가 통일부와, 상대부처의 여러 가지 일련의 언론관 또는 기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좋지만 충분히 정당한 문제제기인데도 불구하고 동료위원에게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또 그 발언을 했던 분이 또 다른 문제제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후에 신중하게 접근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들은 위원장으로서 모두 잘 받아들일 것이고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차원에서 잘 소화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북한 양강도 폭발사고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영달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2.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임채정 의원 대표발의)(임채정·강봉균·강창일·고진화·구논회·권선택·권영길·권오을·김교흥·김낙순·김덕규·김명자·김부겸·김성곤·김영숙·김영주·김영춘·김우남·김원웅·김재윤·김재홍·김종률·김태홍·김한길·김혁규·김현미·김형주·김효석·노영민·노웅래·노현송·단병호·류근찬·문병호·문석호·문학진·문희상·박기춘·박영선·박재완·박찬석·배기선·배일도·백원우·복기왕·서갑원·서재관·선병렬·손봉숙·송영길·신계륜·신국환·신기남·신중식·신학용·심재덕·심재철·안민석·안병엽·안영근·안홍준·양형일·염동연·오영식·오제세·우상호·우원식·우제창·원혜영·원희룡·유기홍·유선호·유승희·유시민·유재건·윤호중·이강래·이경숙·이계경·이광철·이기우·이목희·이상경·이석현·이시종·이영호·이원영·이은영·이인영·이종걸·이철우·이호웅·이화영·임종석·장복심·장영달·장향숙·전병헌·전재희·정덕구·정두언·정병국·정봉주·정세균·정의용·정장선·정청래·제종길·조배숙·조성래·조정식·진수희·천영세·최규성·최규식·최성·최순영·최용규·최인기·최재성·최재천·한명숙·한병도·한화갑·홍미영 의원 발의)

(17시04분)

○위원장 임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의 발의자 중 한 분이신 유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호 의원 이 법은 존경하는 임채정 위원장님께서 16대 때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도해서 성안된 안입니다. 오늘 위원장직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먼저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관계는 이미 국가활동의 주요 부문이자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요성과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북 업무는 고도의 정치행위 개념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으며 이를 추진하는 형태나 제도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남북 관계 및 남북 교류를 규율하는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 국가보안법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등으로 이들 법률은 각각의 특수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사안에 대한 법 규율원칙과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남북 간의 관계 정립이나 정부의 책무, 남북회담 대표 등의 임명, 남북합의서의 효력 등을 밝혀 주는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대북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변화된 남북 관계 발전에 조응하는 법률적 뒷받침 및 향후 남북 관계의 성격, 정책 추진방향과 이를 위한 행위규범도 수용하는 한편 남북 간 특수관계를 법규화해 관련 법 이론의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본법에 있어서 대북업무 법규범 정립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대북업무와 관련한 근본 법 규범은 헌법 제4조 평화통일 조항입니다. 평화통일을 위해서 정부는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협력을 장려하며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 규범으로 정립되어야 할 사항은 북한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교류협력을 위한 대화의 절차와 그 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북관계의 기본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합의로서 아직 법적 개념으로 수용된 일이 없으나 이제는 법적 개념으로 규정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미 북한과 많은 교류협력이 진행·추진되고 있고 이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인 헌법 규정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규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행히 남북 간 합의가 있고 국내에서 이러한 개념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정치적·법적 이론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까지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및 북한주민의 지위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법 취지상 적극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나 현재 법 개념으로 합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누구라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극적인 개념인 ‘외국이 아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남북 특수관계에서 생성되는 합의서의 법적 효력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규범의 형식으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과 예외적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의 성격 및 경중에 따라 국내수용절차를 구분하고 입법사항 등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 국회 동의, 대통령 비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조약적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도록 하였습니다.

즉, 통상적으로 정부가 외국이나 국제기구와 체결하는 일반조약과 구별되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에서 나온 특수조약으로 개념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법 이론은 국가가 아닌 국제법 주체, 국제기구나 교전단체나 반란단체 등과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주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조약체결의 대상주체를 정하면 그 주체와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남북관계에서 합의서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는가는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관행이나 관습법조차도 없습니다. 또한 헌법의 영토조항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비국가실체이므로 동·서독의 사례와도 다릅니다.

따라서 남북합의서의 체결절차와 법적 효력에 관한 입법례는 창조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 현실적 필요에 따라서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법이 남북합의서를 외국이나 국제기구와 체결하는 조약안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에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위배에 관련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법에서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과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문제점의 해결이 가능합니다.

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이 문제는 다른 나라에도 최혜국 대우 적용을 해 주어야 한다는 문제점입니다. 기본법에서 합의서의 내용이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원용되

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과의 합의에 대한 법적 공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을 합의서 체결 상대로 규정하는 등 남북합의서 처리절차를 법률로 정하여 북한과의 합의에 대한 법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남북합의서 체결행위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는 남북합의서를 체결하는 행위는 국가사무로서 행위당사자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임명절차와 권한은 법률로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개든 비공개든 모든 협상당사자는 법적 권위를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고 법에 의해서 보호받으며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이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 추천 인사와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을 구체화했으며, 통상 5년마다 작성하는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을 감안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서 국회와 행정부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안 구성체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기본성격과 정책방향 등 통칙규범 부문과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를 규정한 책무규범 부문과 북한을 상대하는 행위규범 부문과 행위결과 즉 합의를 국내적으로 수용하는 절차규범 부문 등 4개 부문으로 법률안을 구성해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은 기본법으로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사항을 포괄하고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 및 이론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서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대북업무가 정책담당자의 의지와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대북정책과 관련한 정치적 논쟁을 완화해야 합니다. 각 국가기관 역시 참여를 통해 책임을 공유하며 국가제도의 틀 속에서 합법성과 정당성을 강화해 국론 결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보다 충실한 법안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종합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법안은 남북 간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인 남북관계의 성격, 회담대표의 임명,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효력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의 성격에 관한 안 제3조 중 '특수관계'는 분단국인 남북한의 고유한 특수성에 기인하는 개념으로서 법적 개념으로서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이를 법률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둠으로써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고려해 보면 특수관계의 용어선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조 제2항에서는 특정한 제한 없이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정하면서도 동항의 후단에서는 거래관계만을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보도록 한 것은 다소 논리적인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회담대표의 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의 규정과 달리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동안 통치권적 차원에서 임명되어 운영되던 남북회담대표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또한 회담대표가 서명하는 각종 합의서의 법적 근거를 명백히 밝히게 됨으로써 대북정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회담대표의 기준으로 규정된 '중요사항'의 개념이 불특정하므로 중요사항을 예시하거나 일정한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게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권을 부여하고 통일부장관이 이를 보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에 의해 체결되는 일반적인 조약의 경우와 달리 남북합의서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분장하도록 함으로써 남북합의서가 국가조약과 달리 해석되는 유사조약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는 합의서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규정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북합의서의 효력 범위를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설치하여 남북합의서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남북합의서는 '양자조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3국 및 국제사회에 대하여는 선언적 의미는 있다고 하겠으나 우리가 이미 제3국과 체결한 조약과 저촉되거나 충돌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에 이미 체결된 각종 남북합의서에 대한 처리문제도 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체결된 합의서들뿐만 아니라 이미 국회의 동의를 받아 효력을 발하고 있는 남북 간 합의서에 대해서도 경과조치 등을 통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제2항은 대통령에게 남북 간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또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 국회의 재동의를 받게 하고 있는바, 사전적 효력발생 요건인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재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제정 법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법안에 대하여도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은 제안설명을 하신 유선호 의원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없이 양해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답변은 제가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답변한다는 것도 우습고 또 법률가가 계시는데 내가 일일이 답변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유선호 의원께 부탁을 했습니다.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따로 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거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말씀하세요.

○정의화 위원 남북관계발전기본법과 같이 남북관계, 특히 통일과 관계되는 중요한 법을 논의할 때는 해당 장관 또는 차관이라도 배석해서 제안을 한 의원과 함께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정 그 말씀의 취지는 알겠고요. 다만 이 법이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장관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영역이 아니어서 일단 회의의 진행형식은 발의한 의원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정의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서 이후에 공청회 등을 거친 다음에 행정부 쪽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洪準杓 委員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닙니까?

○유선호 의원 그러니까 동·서독의 예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법적으로는 국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국가라는 실체를 갖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유엔에 가입되어 있고 또 국제조약 체결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부적으로는 국가가 아닌 면이 있고 국가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외국이 아니라는 말은 국가가 아니라고 정의를

해 놓고 그다음에 내부거래로 되는 부분을 우리가 예시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국가로 취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터주기 위한 것입니다.

○洪準杓 委員 만약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면,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라면 국가 간 거래에 있어서의 관세 적용이 다 해제되는 것입니까?

○유선호 의원 이 조항을 두는 이유는 예컨대 동·서독 간의 교역을 유럽경제공동체설립협정이나 관세무역일반협정에서는 명시적으로 독일 민족 간의 내부거래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간 거래는 그런 국제적인 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법적으로라도 그 성격을 법제화해서 그렇게 하자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요.

○洪準杓 委員 남북 간의 거래만 민족거래라고 보면, 이게 혈연 중심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러시아동포라든지 중국동포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거래도 민족 간의 거래로 볼 수 있습니까?

○유선호 의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북관계의 특수한 북한과의 관계에서만 특별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특히 재외동포는 이미 그쪽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洪準杓 委員 재미동포의 경우에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150만이 넘습니다.

○유선호 의원 어쨌든 간에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서 관계를 해야 되고 재외동포를 이 법에서 연장하는 개념은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洪準杓 委員 남한과 북한과의 거래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면 세관이라든지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게 국가 간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선호 의원 그렇습니다.

○洪準杓 委員 그렇다면 재외동포 문제를 보면 재외국민이 있고 재외동포가 있지요?

○유선호 의원 그렇습니다.

○洪準杓 委員 미국만 해도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약 150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는 다르지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외동포 개념에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영주권까지 갖고 미국을 주 거주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150만 가량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아직도 귀화하지 않는 재외국민이 50만 가량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남북 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민족 내부거래로 볼 수는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확장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유선호 의원 그 문제가 항상 따라 붙는데 재외동포 보호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과거에 한번 취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국제적으로 외교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진도를 못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그것과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우선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법적인 장애물을 넘어서 관계를 진전시켜야 될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남북관계에 한정해서 생각해 주시고 재외동포 보호문제는 앞으로 별도로 연구를 해 나가는 절차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洪準杓 委員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처음 말씀하실 때 대북지원의 투명성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유선호 의원 그렇습니다.

○洪準杓 委員 동·서독이 서로 경협을 할 때 제3의 화폐를 썼지요?

○유선호 의원 예.

○洪準杓 委員 동·서독만 통용되는 제3의 화폐를 썼지요?

○유선호 의원 예.

○洪準杓 委員 그것이 결국 투명성 보장을 위한 것이지요?

○유선호 의원 꼭 그렇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거기서는 경제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통합의 필요성 때문에 그것이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洪準杓 委員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때 제3의 화폐를 쓰고 물품 구입이라든지 모든 지원하는 것은 서독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유선호 의원 예.

○洪準杓 委員 마찬가지로 대북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남북관계도 제3의 화폐로 사용을 해서, 말하자면 북쪽에 우리가 지원을 하면 그 돈에 대해서는 남쪽에서 전부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유선호 의원 결국 그런 문제도 법적으로 기본적인 관계가 설정된 다음에 준비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洪準杓 委員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제정하는 취지에 대북지원의

투명성 확보 차원도 하나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대북지원을 할 때 결제수단을 달러로 하면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국민의정부 5년간 '퍼 주기는 곤란하다,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 여야 간의 싸움이 그것이었거든요. 야당이 그 당시에도 햇볕정책을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햇볕정책 좋다, 그러나 동·서독처럼 투명성 확보를 해 달라 이거예요.

지금 유 의원님이 동·서독의 예를 죽 들고 계시는데 동·서독의 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화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달러로 지원하고 달러로 결제수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자 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남북 간에만 통용될 수 있는 제3의 화폐로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야당도 아무런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법안을 하면서도 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투명성 확보를 이야기했는데 야당도 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투명성 확보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 투명성 확보를 하는 방법이 동·서독의 예를 그대로 적용해서 할 생각은 없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공청회를 거치면서 다 이야기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유선호 의원 그렇게 화폐를 단일화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완벽한 투명성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지금 달러라는 결제수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洪準杓 委員 동·서독도 마르크 결제수단이 있었지요.

○유선호 의원 저희들이 현재 당면한 투명성의 1단계 목표가…… 지난번에 특검이라는 아픈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될 텐데 투명성이 부족해서 결국은 특검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의 모든 대북접촉 거래관계들이 이런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의 모든 결제과정이 드러나게 법적인 실효성을 갖고 하자는 데 우선 1단계 목표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결제과정에서 투명성이 드러나려면 그런 단계까지 진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1차 목표는 지난번에 있었던 특검과 같은 악순환을 막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 이것이 마련된다면 앞으로 그런 정도로 진전해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洪準杓 委員 법안을 만들 때 결제수단을 제3의 화폐로 만들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지요.

○유선호 의원 그러나 지금 현재 기본적인 법적 실효성의 문제는 매우 다급한 문제이고 제3의 화폐를 준비하고 그것을 합의해 내는 과정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분리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법안을 완벽하게 꾸미려면 매우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법이나 제도나 판례를 우리가 지혜롭게 넘어가서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남북관계에 법적인 실효성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무엇이냐 하는 관점에서 착안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準杓 委員 앞으로 이 법안을 하려면 공청회도 해야 될 것이고 소위에서 토론도 해야 될 것이니까 그때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유선호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홍준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범 위원 이 법안에 대한 내용 질의가 아니고……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 저희 당도 인정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여러 조항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생각은 같이 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중요한 법이고 이것은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법률의 모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이 법안을 조금 더 검토해서 수정안이 되든 별도의 법률안이 되든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게 되면 거의 같은 성격의 법안이 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2개의 법을 같이 공청회에 부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위원장께 올립니다.

○위원장 임채정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마는 아무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이 법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에대한공청회개최의건

(17시33분)

○위원장 임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에대한공청회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58조 제5항에 따르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공청회 개최를 위한 일시 및 진술인 선정 문제는 본 위원장이 양당 간사님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 확정한 후 위원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出席委員(22人)

권영길	김문수	김부겸	김원웅
김혁규	박성범	박세일	신계륜
신기남	원희룡	유선호	이성권
이화영	임종석	임채정	장영달
정문헌	정의화	최병국	최 성
한명숙	홍준표		

○出張委員(1人)

정의용

○請暇委員(2人)

김학원 전여옥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수석전문위원	김용구
입법심의관	김성원

○政府側參席者

통일부

장관	정동영
차관	이봉조
기획관리실장	황하수
통일정책실장	신언상
정보분석국장	성남기
교류협력국장	박홍렬
사회문화교류국장	고경빈
통일교육원장	박성훈
남북회담사무국장	홍홍주